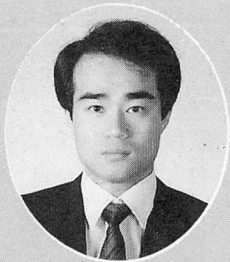


우리는 이렇게 서비스 하고 있다

각종 질병 진단 서비스



윤인중 부장
(중앙가축전염병연구소)

양돈 그것은 엄연한 사업이며, 경제적 활동의 한 분야이다. 따라서 양돈사업에서 돈육생산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돼지는 지방과 단백질 공급의 경제적 가치의 척도인 것이다. 이와같이 경제적 척도의 돼지를 사육하는 양돈농가에서 질병을 최소화 하는 작전은 다른 사업의 경영전략과도 같은 것이다.

'90년대 이래 우리의 양축가들도 경제적 단위 의식의 합리화로 부분적 치료중심에서 전체적 예방으로의 변화가 빠르게 전환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의식전환과 백신 Program에 따른 적절한 백신의 공급이 이

를 따르지 못하는 실정이다. 즉, 농장별로 다양한 항원형(抗原型)과 한국양돈의 고질적인 병폐중의 하나인 항생제 남용으로 대장균증, Actinobacillus (Haemophilus) pleuropneumoniae, 엔테로 바이러스증에 대한 기존백신의 효과를 의심케 하고 있다. 한 예로 돼지의 호흡기 질병의 하나인 흉막폐렴을 일으키는 Actinobacillus pleuropneumoniae의 혈청형이 현재 S-2, S-5만이 인정되어 제조되고 있으나 실제로는 이보다 더욱 다양한 혈청형이 국내에서도 분리되고 있어 완벽한 예방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재 피해를 받고 있는 양축농가의 가검물에서 병원체를 순수 분리배양하여 그 양축농가에 적절한 백신을 제조하여 공급하는 것이 불가피한 것이다. 또한, 특정 백신에 사용되는 항원형이 확정된 우리의 검정제도하에서 생산된 백신으로는 그 다양한 병원체에 의한 질병을 골고루 예방할 수 없어, 검정제도 또한 보완의 필요성이 요구된다. 한편, 무분별한 외제 백신의 수입과 다양한 항원형의 백신수입은 방역에 혼선을 초래하므로 이 또한 재고의 여지가 있다고 하겠다.

우리나라 양돈농가는 돼지유행성설사병(PED) 또는 전염병위장염(TGE)의 증상과 비슷한 질병으로 피해를 입고 있으면서 자기농장에서 발생한 질병을 은폐하기 위하여 공인된 조사나 보고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며, 일련의 이와같은 상황은 도처에서 연쇄적으로 양축농가를 괴롭히고 있어 머지않아 기온이 낮은 가을과 겨울철에 본 질병으로 인한 수많은 자돈의 폐사로 또 한차례 양돈파동을 예상 가능케 하고 있다.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같이, 양축농가에 직접 피해를 주고 있는 병원체를 이용한 자가백신(Autogenous biologics)¹⁾의

활용방안(미국의 경우 Code of federal regulations)을 조속히 확립하여 적재적소에 이용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있어야 하겠다. 이미 인력과 시설이 갖추어진 정부기관 또는 정부에서 공인된 가검물 검색기관을 통하여 질병이 발생하면 즉시 가검물을 스스럼없이 의뢰하여 정확한 진단을 받을 수 있는 양축가 보호측면의 서비스 제도가 확보되어야 하겠다. 또한 질병발생과 동시에 신속한 방역대책을 마련하는 자세의 재정립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라 생각된다.

당소 부설 파천연구소에서는 '92년 가을부터 폭발적으로 피해를 입혔던 유사 PED를 비롯하여 엔테로 바이러스증, 대장균증, Actinobacillus pleuropneumoniae 등 몇몇 피해농장의 가검물을 이용, 치료목적으로 질병 조절(억제) 서비스를 한 결과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옛말이 생각난다. 병은 자랑해야 고칠 수 있다는 속담이다. 지난 5~6년간 우리나라 양돈사업에 막대한 피해를 준 질병들인 오제스키병, 유사 PED, PRRS 등을 숨기고 있는 양돈농가의 현실이 안타까울 뿐이다. 이제는 입을 열 때가 된 것인가?

돼지질병 최소화 작전. 이 명

제는 양축가, 정부 또는 민간 메이커중 한 부분만으로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과제이다. 이 세부분이 삼위일체가 되었을 때 비로소 이 작전에 성공할 수 있을 뿐 만 아니라, 높고 험한 UR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길이라 하겠다. 끝으로 농장의 방역은 평소에 꾸준한 관심으로만 해결될 수 있다는 필자의 소견으로 양돈인 여러분께 당부하고 싶은 것은, 돼지의 출하시 또는 모돈의 도태시 혈액채취를 통하여 특정질병의 감염여부와 백신의 항체 형성여부를 수시로 모니터링하는 습관을 갖도록 권한다. 

자가백신^{*1}: 축산농가에서 현재 피해를 주고 있는 병원체를 순수 분리배양하여 불활화시키고, 면역증강제를 혼합하여 직접 피해를 입고있는 양축농가(낙농, 양돈, 양계)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백신으로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널리 애용하여 많은 효과를 보고 있지만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정확한 규정이 없다. 그러나 수의사 판단에 의해 피해농장에 치료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